

프랑스

학교 내 인스턴트 과자류 자판기 판매 금지

# 아동과 청소년 비만예방



프랑스 의회가 중·고등학교 안에서 인스턴트 과자류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 스낵류의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현재 금지된 스낵류는 탄산음료와 초콜릿, 과자 등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 앞으로 다량의 지방이나 염분이 함유된 식품도 순차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군것질류 대신 영양 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과한 식품만 학교에서 팔 수 있도록 조치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비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와 같은 움직임에 긍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랑스의 여러 단체들은 의회의 법안 통과를 위해 3년 전부터 노력해왔다.

# 자선 제빵단체 불량제 뒤 몽드 설립 불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빵사의 길 인도

자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랑스 제빵 단체인 '불량제 뒤 몽드(Boulangers du Monde)'가 주목받고 있다. 뜻있는 제빵사들이 합심해 세운 불량제 뒤 몽드는 불우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제빵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단체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불우한 환경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빵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첫 번째 불량제 뒤 몽드 센터가 세워질 곳은 카메룬의 두알라로 두알라의 자선 단체인 '센데 푸아에 생니코뎀(Chaine des foyers Saint Nicodeme)'과 함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불량제 뒤 몽드는 두알라의 자선 단체를 이끌고 있는 마리 루미(Mary Roumy) 수녀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밝혀져 프랑스 제과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사)대한제과협회 주최

# 동경제과학교 각종 세미나 실시



동경제과학교(교장 山本圭一)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사)대한제과협회가 주최하는 동경제과학교 세미나가 열려 29명이 참석했고 양과자와 빵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은 한국의 각종 대회의 최우수상 수상자 22명을 위한 특

별 세미나가 열렸다. (사)대한제과협회 주최로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세미나는 일본양과자연합회와의 협력으로 일본 내 유명 강사를 초청해 빵, 양과자, 초콜릿, 설탕공예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고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 온라인 양과자 전문 포털 사이트 델리케이크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온라인 양과자 판매 사업도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통방법과 기한 등의 문제로 취급 가능한 상품이 구용과자로 한정됐지만, 지난 5월 생과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판매 포털 사이트가 새롭게 탄생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유추얼이 운영중인 '델리케이크'는 동경 시내 유명 제과점의 케이크를 지방에 있는 고객에게까지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택배회사, 제과점, 포장회사가 공동으로 손을 잡고 시작해 온라인으로 배달을 신청하려는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